

계속 살아있는 《올(ALL)아이씨》의 정신

나고야조선초급학교 교장
김성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회리사회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인한 립시 휴교조치가 취해진 4 월달에도 진행되었다.

본교에서는 학교정주년행사를 빛나게 맞이하자는 구호밑에 지난 학년도부터 학교운영사업 정상화는 물론 그 행사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협의와 검토가 계속되어왔으며 이번 학년도부터는 교육회리사도 젊은 세대로 일신되었다.

그러나 이번 리사회는 현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인한 립시휴교조치가 취해진 우리 학교 형편을 서로 파악하고 학교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속에서 학생원아를 위해 인터넷매체를 통한 동영상발신을 예정하고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그를 위한 기재가 없음으로 하여 동영상을 발신해도 일부 가정에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회의중인데도 한 리사가 손전화를 손에 쥐고 밖에 나갔다.

급하게 사업이 제기되었는가고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그의 뒤모습을 보고있었으나 다시 돌아오니 그 리사가 하는 말이 《교장선생님, 그 기재설치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뜻하지 않은 말을 하는것이였다.

그는 인터넷기재가 없음으로 하여 동영상을 발신해도 못 보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차 어느 청상회회원과 연락을 취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연락을 받은 청상회회원도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곧 움직이겠다는 답을 해준것이다.

그 2일후에는 인터넷기재가 각 가정에 설치되었다.

학습과제를 배포하기 위해 통학빠스를 몰고 교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니 《선생님, 식사는 하셨습니까?》고 맛있는 식사와 바라지를 준비해준 보호자들.

소독액이 모자라기에 원액 30L 를 기증해준 보호자.

마스크가 없어서 학교가 고생많을것이라고 평상시는 접촉이 없지만 학교에 찾아와 마스크 수천장을 기증해준 민단, 미조직동포들.

학생원아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신한 발상으로 웹(Web)미술전람회를 기획해준 청상회동무들.

긴급대책위원회가 진행되면 동포들의 건강정형료해는 물론 항상 학교걱정을 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되며 여러 의견과 방도를 진심으로 방조주는 총련 각급

기관일군들과 녀성동맹일군들.

이간에 우리 학교가 받은 사랑은 수없이 많다.

평상시부터 받은 사랑은 많고많지만 오늘의 이 긴급한 정황에서 그를 더더욱 느끼게 된다.

우리 아이찌현은 과거 《올(ALL)아이찌》란 구호밑에 청상회포럼을 성공시킨 지역이다.

전체 아이찌현동포들이 하나가 되어 상기 행사를 전국에 보란듯이 성공시킨 잠재력을 과시한 지역이다.

일시 그 불씨도 잠잠해진 분위기가 있었으나 그 불씨는 잠잠해졌을뿐 꺼지지 않고있다.

계속 살아있는 《올아이찌》의 정신.

이 난관을 꼭 이겨낼수 있다고 확신한다.